

외식업체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조사

박 정숙*, Ray Kavanaugh,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klahoma St. Univ.

외식 산업체에서는 주된 인력 공급원인 젊은이(만 16세-24세)의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의 취업 기피 현상과 증가하는 외식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선두 외식 산업체에서는 고용인의 높은 이직율, 산업체의 발달에 의한 고용인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퇴직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고용 하기 시작 하였다. 여러 외식 산업체에서,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인들이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직율 및 성실한 근무태도로 그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개인 외식업체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인 의식 조사와 응답자의 인적 요인 및 업소 특성과 장애 특성에 따른 고용주의 의식을 조사 하였다.

미 외식 연합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회원 중에서 개인 외식업체의 고용 관리 책임자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 하였다. 우편으로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되었다. 회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였고, case study는 Chi-square tests를 이용하였으며, 19개의 의식 조사 문항은 각 요인 별 분석을 위하여 ANOVA 와 t-tests를 이용 하였다.

유용한 설문지 회수율은 21% 였고, 응답자의 75%는 남성이었고, 72%는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70%이상의 응답자들은 업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7%는 장애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장애 형태는 정신 지체 장애(mental retardation)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1명에서 5명의 장애자를 고용 하였다. 고용주들은 모든 고용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 정상인과 비교시 부정적인 편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전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자가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p < 0.05$) 정신 지체 장애, 신체 장애, 및 시각 장애자에 대하여 업소 내 장애 고용인의 수에 따른 응답자의 태도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고용주들은 정신 지체 장애자들에 대하여 다른 장애자(신체 장애, 청각 장애 및 시각 장애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p < 0.01$)